

“꽃은 자태가 아름다워야”

“서울에서 활동한지 3년이 됐고, 그런 뜻에서 자기정리라는 의미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또 후배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新世界百貨店에서 작품전을 연 구름가건축 · 도시연구소 대표 姜錫元씨의 말이다.

이번 개인전은 3年間의 결산이라는 의미 외에 20여년간의 건축가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回顧의 인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論山訓練所計劃」으로 지난 61년 10회 國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남달리 화려한 데뷔(?)로 건축에 입문한 姜所長은 그뒤 학업과 作品활동을 프랑스에서 하다가 3년전에 귀국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22점이 출품된 이번 개인전에도 8점이 파리 滯留때에 남긴 作品으로 그로서는 前과後의 맥락을 보인 전시회이기도 하다. 물론 나머지 14점은 3년 동안 귀국후 줄곧 해온 作品들로 알뜰하게 마련한 것.

파리에서의 作品가운데 이번 작품에 출품된 것은 駐佛韓國人使館을 비롯해서 뷔르오리시의 주거단지, 누와지엘의 주거단지등이 선을 보였고 國內作品으로는 전주 덕진문화회관, 재개발지구계획등이 포함되어 있다.

姜所長의 滯佛활동은 지난 74년 동파리 위성도시 현상응모에서 당선된 것을 위시해서 많은 作品활동의에 在佛僑民會長職을 厂任하는등 건축의적인 활동도 돋보였다.

귀국후에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과 한국 건축가협회 이사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14차 UIA총회에는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개인전도 UIA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해서 가진 것이다.

“그곳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作品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건축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건축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별로 높지 않은데 비해 그곳(폴란드)에서는 일반국민이 作品을 통해 건축가를 익히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소식을 알려 준다.

“건축가의 地位向上에 관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 스스로가 얼마큼이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요. 우리가 갖출 것 갖추고 빠르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지위가 향상되는 게 아니겠어요”

건축가의 모든 것은 作品이 말해주고 그 작품을 통해서 건축가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만큼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우리 건축가가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 이유 가운데는 사회적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建築主의 인식부족과 이에 따른 건축가의 설득력 부족도 크게 作用한다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 건축의 年

輪이 짧은 탓도 있다는 것이다.

“世界的으로도 作品의 스케일면에서는 선진 각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의 建築藝術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건축가 스스로의 努力, 社會的인식의 提高 나아가 확고한 政策的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꽃은 꽃자태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자태가 더욱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姜所長의 建築觀 다른 분야의 作品展示會도 동일하지만 특히 건축작품전은 그 준비 과정이 길고 많은 작업이 뒤따르는 점에서 힘들다고 전한다. 특히 일반인들의 인식이 建築展을 보는 눈이, 美術展등과는 달리 흥미롭지가 못하다는 면에서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 作品展은 교육적인 측면과 자기발전, 정리, 또 새로운 계기 마련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며, 따라서 어떤 형태로라도 자주 열려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의욕이 넘쳐 보이는 姜所長은 당분간 서울에서의 作品활동이 바쁘다고. <*